

2022

Vol. 5





오케스트라는 오알켐, 오알켐중국, 오알켐비나, 오알시솔루션, 에이엘에스가
하나 되어, 하모니를 이루며 연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ORCHEM


Solution

China

ALS

Vina



O₅RChestra

ORCHEM

O! Quiz 이벤트!
사보 마지막 페이지 O! Quiz를 풀어보세요!
임직원 10명 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응모방법 : 전영례 사원 메일(jyrea@orchem.com)로 응모
※ 본 이벤트는 랜덤추첨으로 진행됩니다.



CONTENTS

04 O! Hightlight
06 O! News
16 Inside ORChemer
18 O! Workmate
24 슬기로운 오알켐 생활
27 O! Photogenic
28 O! Congretulation
29 O! Research
30 산업 / 기술동향
32 O! Language
34 O! Health
35 O! Campaign
36 O! Culture
37 사내기자단 1기 소감
38 O! Test
39 O! Quiz

발 행 처 (주)오알켐
발 행 일 2022년 7월 1일 (통권 제 5호)
편 집 전영례
디 자 인 민선경
기 자 단 ORCHEM (본사) 윤지수, 김정현
ORCHEM (중국법인) 莫秋玉 Mo qiu yu
ORCHEM (베트남법인) Jang
오알시솔루션 박승영, 김준용
에이엘에스 장민현
전 화 031-488-0600

2022 2Q ORCHEM
주요 활동 돌아 보기

살랑살랑 꽃잎이 저물고 푸르름이 성큼 다가온 2분기가 지났습니다.
맑은 햇살같은 여름의 오알켐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하면서,
오알켐의 2분기 활동을 함께 돌아볼까요?

04월 사내카페(O!CAFE) 인테리어 변경



04월 O's Road(산책로) 개방



04월 PIE TFT 출범



04월 선택적 복지제도 신설



05월 동호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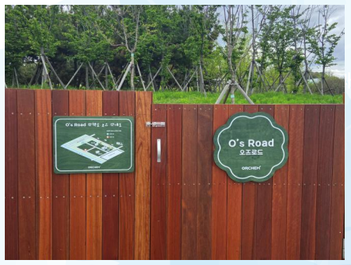


05월 O's Day 소통의 날





[O! CAFÉ에 찾아온 새로운 변화]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의 확산세가 점차 사그라들어, 사적 모임 제한이 풀리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요즘, 오카페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파티션이 사라지고, 창가에 콘센트 테이블이 들어온 것입니다! 기존 가구와 달리 밝은 색의 원목가구와 스탠드 조명으로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테이블들도 배치를 변경하여 새로운 느낌의 카페가 되었습니다.
달라진 오카페 다들 어떠신가요?



[O's ROAD(오즈로드)와 사내공원]
각자의 방법으로 보내는 점심시간, 종종 회사 주변을 산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시화호를 따라 바람을 맞으며 걷는 것도 좋지만, 회사 주차장을 지나서 보이는 O's ROAD(오즈로드)를 열면 소나무와 들꽃이 피어있는 멋진 곳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알켐 여러분들께 새로운 산책 장소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알켐의 사내공원이 더욱 화사하게 바뀌었습니다. 꽃사과나무, 화살나무, 마가목, 산수유나무 등의 새로운 나무들이 심어져 풍성해졌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흔들의자도 더 추가되었습니다. 날이 점점 좋아지는 요즘, 업무 중 쉬어가는 시간에 오즈로드와 사내공원을 찾아주세요.



[PIE TFT 출범]
지난 4월 11일 Kick-off 미팅을 시작으로 오알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PIE TFT가 출범하였습니다. 영업관리, 구매자재, 생산관리, 품질관리, 연구소, 인사총무, 재무회계, 전략기획까지 총 8개의 팀이 모여 TFT를 구성하였습니다. 회사의 프로세스와 시스템 혁신을 위하여 과제를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업무의 고도화와 효율화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PROCESS로 소통하고, SYSTEM으로 일하고, DATA로 확인하자!





[공채 10기 중간교육]
꽃이 만개한 봄, 3월에 입사한 공채 10기들이 어느덧 두 달여의 시간이 지나 중간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공채 10기의 중간교육은 4월 21일~22일 대부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웅범 대표님의 특강, 나만의 비전 새기기 등 알찬 프로그램과 함께, 10기 동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입사 후 회사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시간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중간교육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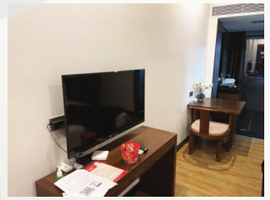






[소통활동 재개]
소통공간 51펍 : 임직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자연스러운 소통을 장려하고자 회사 밖에 소통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하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동호회의 날 재시행 : 2021년 5월 이후로 중단되었던 동호회의 날이 재개되었습니다. 동호회의 날은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오알켐에는 기존의 볼링, 풋살, 공방, 세차, 골프, 테니스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호회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더욱더 사랑받는 회사, 출근하고 싶은 회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O's Day 소통의 날 :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되었던 임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O's Day 소통의 날 행사가 5월 25일 수요일에 진행되었습니다. 통돼지 바베큐와 소시지, 순대구이 등의 특별한 저녁식사와 함께 생산동, 연구동, 사무동 전체가 모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입사한 공채 9기와 10기를 소개하는 시간과 퀴즈 시간이 행사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대표님의 "회사의 직원이 아닌 주인이라는 생각과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알켐 중국법인 마케팅팀 이정영주임의 중국출장기


격리기간 머무른 호텔


호텔 조식


호텔 식사

출장 초반, 여러 가지 복잡한 입국 및 코로나 검사 절차를 거친 후 힘들게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격리 기간 3주 동안 호텔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며 몸은 편하지만 다소 답답한 생활을 하며 보냈습니다.

격리가 끝나고 동료들과 상해로 이동하여 고객사 출입을 위한 코로나 검사 및 각종 서류 준비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낸 후 고객사에 방문하여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상해의 고객사 업무가 끝나고 귀국을 준비하던 중 갑작스러운 상해 봉쇄 조치로 인해 귀국행 비행기가 취소되고, 머물던 호텔은 코로나 격리자를 위한 격리 호텔로 변경되어 새로운 호텔을 구해야 했습니다.


코로나 검사 대기 모습


텅 빈 상해 시내 모습

봉쇄 전에 간 마트에서 우연히 초코파이를 샀는데,이 초코파이가 봉쇄 기간 동안 버틸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입국 후의 격리 기간은 3주 후에 끝나기 때문에 끝나는 날을 기다리며 보냈는데, 봉쇄 기간에는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봉쇄 기간도 계속해서 늘어나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 힘들었습니다. 여러 도움을 통해서 비자 만료 하루 전 공항에 도착하여 귀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 정말 다사다난했던 출장이었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중국법인 직원 :
개발영업팀 汪涛(왕타오), 책임감이 강하고 묵묵히 일하는 성실한 직원입니다.
중국 출장 tip : 라면과 고추장은 필수입니다!

GOOD

오알켐 중국법인 창립기념일 축하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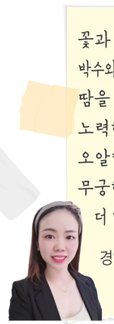
(오알켐 중국법인 莫秋玉 Mo qiu yu 기자)



한마음 한뜻으로 희망을 함께하고, 함께 미래를 축하합시다.
구매자재팀 취안웨이핑 (全伟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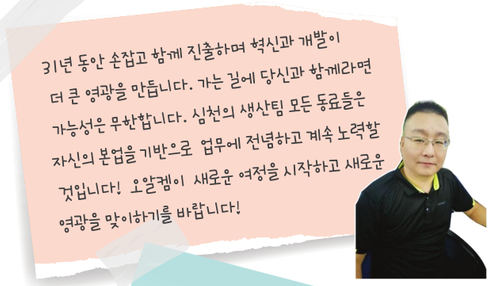


노력한 만큼 보람을 얻으며 뒤돌아보며 우리는 함께 곤경을 헤쳐 나가며 손잡고 혁신적으로 발전하며 함께 빛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계속 혁신하고, 항해하며, 큰 성과를 내는 회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사총무팀 장취안팡 (张权芳)



꽃과 좋은 술을 곁들이고,
박수와 환호와 함께 축하합니다.
땀을 흘리고 성공을 얻고,
노력한 것은 성과입니다.
오알켐의 밝은 미래,
무궁한 발전,
더 많은 성공을 기원합니다.
경영관리팀 모추위 (莫秋玉)





31년 동안 손잡고 함께 진출하며 혁신과 개발이 더 큰 영광을 만듭니다. 가는 길에 당신과 함께라면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심천의 생산팀 모든 동료들은 자신의 본업을 기반으로 업무에 전념하고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오알켐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새로운 영광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생산팀 왕펑 (汪锋)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문제에 굴복하지 않고 문제에 압도되지 않고 잘못된 길에 현혹되지 마세요.
스트레스로 인해 포기하지 말고,
좋은 성과 때문에 게으르지 마세요.
앞으로 나아갈 때, 하늘이 맑을 것이고
내년에도 훌륭한 성과를 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고,
함께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품질관리팀 저우롄화 (周莲花)



Happy Birthday ~



지난은 빨리 흘러가지만 지금이 한창입니다.
주년간의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규모가 커지고, 차업이 발전하고 번창하며,
재원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기술영업팀 류진탕 (刘锦堂)

오알켐 베트남법인 회계자금팀 이경민사원의 베트남 파견 소감

1. 베트남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사람들이 활기차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갔을 때는 호텔에서 2주간 격리를 했어야 하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말소리, 웃는 소리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날도 있었고, 매일 저녁에는 호텔 뒤 풋살장에서 경기가 있었어요. 덕분에 격리 기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2. 기억에 남는 특별한 경험이나 에피소드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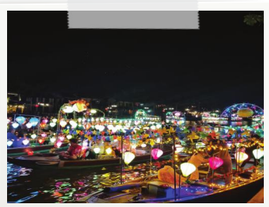
베트남의 설날인 '뗏(Tết)' 기간에 여행했던 다낭이 기억에 남습니다.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해안 도로를 달렸는데 맑은 날은 물론이고 비 오는 날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사람들도 너무 친절했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어서 오랫동안 잊지 못할 여행이 될 것 같아요.

3. 베트남 법인의 소개하고 싶은 직원이 있을까요?

흐엉 경리장(Nguyễn Thị Lan Hương)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베트남 법인의 시작부터 함께 했던 직원이에요. 책임감이 강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이에요. 한국어 실력도 상당해서 제가 베트남에서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4. 베트남에 근무하게 될 직원들에게 메시지(노하우)를 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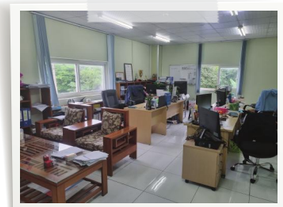
저도 처음에는 '해외'라는 것에 많이 겁났는데요. "다 사람 사는 곳인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_^ 직원들도 모두 친절하니 먼저 다가가면 금방 친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설날 연휴의 다낭 모습



맛있는 쌀국수!



VINA 법인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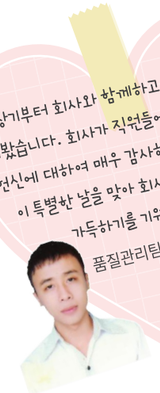
오알켐 베트남법인 창립기념일 축하메시지

(오알켐 베트남법인 jang 기자)

회사 창립 기념일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오알켐 비나는 본사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여정은 어떤 기업도 달성하지 못
한 가장 어려운 정복 중 하나였습니다.
오알켐이 열정을 가지고 가치 있는 성과를
찾기 위한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관리팀 트린 티 쿠옹 트엉



초창기부터 회사와 함께하고 회사의 노력을
지켜봤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베푸는 관심과
헌신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특별한 날을 맞아 회사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품질관리팀 응우옌 바 당



ORCHEM VINA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하여 닻을 내린
날을 맞아, 회사가 순조롭게 항해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큰 바다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회사가
항상 발전하고 고객과 파트너의
신뢰를 받으며 지역 최고의
기업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계팀 호앙 티 엔





지난 1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던 ORCHEM VINA의 무궁한
성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사가 항상 좋은 실적을 유지하고 업계에서
가장 빛나는 별 중 하나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인사총무팀 레 티 탄 란

HAPPY
birthday



작년은 베트남과
세계 시장의 모든
기업에게 어려웠지만 팬데믹 속에서도
회사의 끊임없는 노력과 경제발전과 회복에
직원들의 결의와 의지를 봤습니다.
회사가 더욱더 튼튼해지고 더 나아가
시장에서 더 높이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경영진과 회사 모든 직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품질관리팀 응우옌 티 응옥 안

회사 창립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ORCHEM VINA는 제가 앞으로 오래 머물고
싶은 두 번째 집입니다. 지금까지
전문적인 업무를 배웠고 일을 세심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회사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자재관리팀 응우옌 반 쾅



오알켐 창립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회사가 업계에 더욱더 깊은 뿌리를 박고
많은 잎을 뻗쳐 지역사회에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직원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신 회사의
리더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사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술팀 부이 두 만



Thanks to message

김지숙 과장

6월이면 팔순을 맞이하시는 나의 시어머니 윤춘자 여사님~^^
어떤 말과 표현으로도 부족하지만,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고백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댁 스트레스로 시금치도 싫어한다지만,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나의 시어머니 당신이 나의 큰 복임을 대답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삶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많은 이들에게 베풂을 실천하시는 그런 분이시기에 제가 그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어머니를 닮고 싶습니다.
어머니 항상 건강하세요. 어머니의 며느리로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부족해서 항상 죄송스러운 며느리가… 존경하는 어머니께..

박승영 사원

당연히 부모님도 감사하지만, 솔루션에 와서 부모님보다 많이 보고 얘기하는 직장 동료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 김준용 사원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비슷한 나이 때문인지 스스럼없이 빨리 친해진 동료입니다. 제가 현장을 잘 모를 때, 늘 상 다가와서 가르쳐주고, 도움을 주었는데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만 하고 표현은 안 했던 거 같습니다. 감사하다라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준용 사원

저는 서광우 부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회사에 입사를 하고 일이 익숙하지 않아 원자재 및 제품을 잘 모르고 헷갈려서 실수를 많이 하여도 항상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잘 보듬어 주셔서 일을 열심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자취를 시작하면서부터 먹는 게 부실하여 간 혹 가다가 먹을 음식과 생필품 등을 챙겨주시고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부장님께서 많이 지켜 봐주시고 알려주셔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즐겁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김대원 대리

우연히 인터넷에서 글을 하나 봤습니다. 이번 가정의 달 Thank to 메시지에 맞는 거 같아서 이렇게 적어 봅니다.
"모든 불행에는 불평이 있다고 합니다. 불평을 없애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지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합니다. 불평하는 습관은 고치기는 힘들지만 항상 주의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면 불만과 교만을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불평을 하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봅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짜증은 안 부리는지 직장동료 후임한데 이유 없이 불평을 하지 않는지, 불평을 하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닌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가족, 직장 동료분들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ORC솔루션 박승영, 김준용 기자)

31주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더욱더 발전 하는 회사가 되기를 기원하고,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 서광우 부장 -

For You!

지금의 오알켐에
우리의 손은 박수를..
도약하는 오알켐의 내일을 향해
우리의 발은 Jump Jump Jump
- 김지숙 과장 -

31th

주식회사 오알켐 창립 31주년 축하합니다.
사장님, 임직원분들 모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 강신봉 이사 -

31주년 축하드립니다.
40,50…100주년까지
도약하는 오알켐이 되길
기원합니다.
- 김대원 대리 -

I♡you…

cake

Good!

Happy!

오알켐 창립 3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객으로부터 더욱더 사랑받는
기업으로 발전 하길 기원합니다.
- 김경선 차장님 -

Happy Birthday

ALS 2공장 소개



ALS 2공장 사옥 전경

ALS 2공장은 HDI, PKG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본사에서 약 10분 거리에 근접해있으며, 생산동과 사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접견실

2층은 각 부서 간 신속한 업무 교류와 효율성을 위해 통합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고, 3층은 연구소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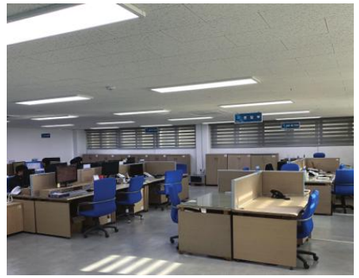
ALS
2공장을
소개
합니다~

(ALS 장민현 기자)



로비

사무동 1층 로비는 임직원 및 외부 손님들이 회사 방문 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장소로, 입구 정면은 웰컴 보드를 설치하여 회사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무실

생산동 1층은 무진실로 PKG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층은 HDI 제품을 생산, 3층은 회로 공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산동

ALS는 “PCB 최고의 회사”, “사랑받는 회사, 출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ALS 창립기념일 축하 메시지

MEMO

1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
앞으로 14년, 24년, 34년
쭉쭉 많이 사랑받는 회사로
성장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품질팀 김정은 사원 –

good DAY

ALS 창립 14주년을 축하합니다.
어느새 회사를 설립한지 14주년이
되었습니다. ALS의 모든 임직원과
오알켐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발전되는 ALS의 한 초석이
될 수 있게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인사총무팀 양재석 대리–

오알켐 창립 31주년
ALS 창립 14주년

ALS 창립 14주년과
오알켐 31주년을 축하합니다.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설비환경팀도 오래오래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설비환경팀 조태룡 대리 –

실력은 비탈길처럼 늘지 않고, 계단처럼
단계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2공장도 마찬가지로 점차 성장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LS 파이팅!!^_^

– 회계자금팀 이지영사원 –

memo

현실에 안주하면 미래가 없으니
늘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서
더욱더 멋진 회사로 성장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에칭사업부도 함께 할게요~^_^!

– 영업관리팀 김미송사원 –

O! Interview

품질,ESM부 김선태 상무님♡

1. Q : 먼저 사보가 창간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축하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A : 오알켐 가족을 대표해서 사보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ORCHESTRA라는 이름은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도 참 멋집니다.
   우리 사명인 ORCHEM과 닮아 있기도 하고, 이름의 의미가 "화합과 조화를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라는 뜻에서 우리들이 지향하는 모습과 일치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의 이야기 예쁘게 담아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ORCHESTRA 그 멋진 이름만큼이나 신나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연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Q : 임직원들에게 먼저 인사해 주고 맞이해주시는 김선태 상무님께서 스마일 가이라고 불리시는 것 알고 계신가요? 항상 웃음을 머금을 수 있는 비결이 있으신가요?
   A : 그런 별명이 생겼는지는 몰랐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네요. 하하 굳이 비결이라면, 삶(人生)에 대한 마음가짐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왕이면 밝고 행복하길 바래요, 그리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밝음과 웃음을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돈도 들지 않고, 나중엔 자신의 긍정적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알게 된답니다. "인생은 지구로 온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얼마나 지혜로운 여행을 하고 있나요~? 부디, 미움과 어두운 불만보다는 감사와 밝은 웃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3. Q :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최근 탄소 중립 등 환경 이슈가 대두화되며, 우리 오알켐 또한 ESG 경영으로 구조를 개편하고 있는데요. 품질,ESM 관리부서장님으로써 오알켐이 나아가야 할 방향 혹은 22년도에 목표로 하시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 조금이 아니라 많이 어려운 질문인데요. ㅎㅎ 환경과 사회, 인간의 삶에 기업이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게 평가받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큰 흐름 속에 ESG는 기업이 생존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준비하고 갖춰야 할 핵심요소가 된 것이고, 오알켐도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ESM의 22년도 목표는, 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준법을 넘어선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시각으로 전환해 내는 것이고, 오알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행동으로 나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4. Q :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며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김선태 상무님처럼 웃음을 잃지 않는 오알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직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 한 말씀(?)보다는, 오래전부터 제가 좋아하는 시의 한 대목을 소개할게요.

청춘(靑春)

- 사무엘 울만 -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장미같은 얼굴, 붉은 입술, 유연한 팔다리가 아니라
굳센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정열을 가리킨다.
청춘이란, 인생이라는 깊은 샘의 청신함을 말한다.
청춘이란 겁내는 마음을 물리치는 용기,
평온한 기분을 떨쳐버리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세의 청년보다도
60세의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파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한,
80세 일지라도 그 사람은 청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내카페(O! CAFE) 김민선 매니저님♡

(오알켐 윤지수 기자)

1. Q : 안녕하세요 김민선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
   A : 안녕하세요 김민선입니다.

2. Q : 먼저, 매니저님 덕분에 커피는 물론 각종음료, 간식, 다과, 식사류가 풍성해져서 모두가 행복해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신메뉴 선정 시 고려하는 부분 혹은 기준이 있을까요?
   A : 저만의 큰 분류 기준이 있는데요, '생산동/연구동/사무동'으로 구분합니다. 각각 오는 시간대도 다르고 선호하는 음식 종류도 다 다릅니다.
   생산동은 바로 섭취 가능한 것, 연구동은 실온 장기 보관 가능한 것, 사무동은 선택이 매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직원분들이 자리에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무취 소량 제품을 다량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디저트 종류는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때 그때 개선하고 있습니다.

3. Q : 매니저님께서 오알켐 근무하신 뒤 가장 큰 변화는 커피 맛이 정말 좋아졌다는 것인데요, 혹시 비결이 있을까요?
   A : 사실 저는 특별한 노하우는 없지만, 오알켐에 오자마자 한 것은 그라인더 세팅이에요. 분쇄도를 보고 그라인더가 예민한 편이란 걸 알고, 10잔 이상부터는 신맛이 나는 걸 잡고 커피 맛의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그라인더 세팅을 했습니다.
   바리스타로 일한 지 12년째인데, 계속 기업 라운지에서 일했기 때문에 저는 사내카페 혹은 라운지에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4. Q : 매니저님께서는 하루 동안 오알켐 임직원과 가장 많이 마주치는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시간대별로 오는 임직원의 특징이 있을까요?
   A : 일단 생산동분들은 여기 오시지 쉽지 않아서, 오실 때 한 번에 많이 사세요. 생수도 정말 많이 드세요. 그걸 고려해서 저는 캔 음료 보다는 뚜껑으로 다시 닫을 수 있는 페트병 음료를 많이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5. Q : 최근 들어 신규 입사자가 늘어 더욱 바빠지셨을 것 같은데, 혹시 힘든 점이나 임직원에 바라는 점 등이 있다면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A : 처음에 텀블러 외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카페 재고의 위치와 동선을 다 바꿨습니다.
   사실 저는 힘든 것보다는 감사한 게 더 많아요, 제가 원하는 동선대로 바꾸는 것을 좋게 생각해 주셔서 안상무님, 인사팀, 대표님 전부 제가 편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어요. 청소랑 인테리어까지도요.
   간혹 제가 바쁘다 보니 몇몇 분들이 저를 배려하셔서 음료를 가져가시고 주문서를 떼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때 다른 분의 주문서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엔 제 동선이 꼬이게 돼요. 그래서 쇼케이스 안으로는 안 들어와주셨면 좋겠습니다. 또 근래에 일회용품에 달라는 분들이 계신데, 회사의 방침상 그런 요청은 조금 자제 부탁드려요,
   바라는 점은, 여러분께 많은 의견과 피드백을 부탁드려요. 왜냐면 저는 팀에 속한 게 아니어서 메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가 조금 힘들답니다. 또 매달 신메뉴가 나오고 있고, 저희 사내카페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없는 메뉴라도 제가 만들 수 있는 건 다 가능해요! 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Q :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알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A : '공략지 없는 신종게임' 같아요! 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도 안 해본 것들이잖아요? 퀘스트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공략도 정해진 것이 없어서 재밌어요.

O! Interview

(오알켐 김정현 기자)

서로의 강점을 보며, 그 강점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팀,
즐겁고 유쾌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팀, 모든 임직원들과 만나는 인사총무팀을 만나볼까요?

Q. 각자 인사총무팀에서 어떤 일을 맡고 계시나요?

홍홍기 차장: 인사총무 전반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강형욱 과장: 평가, 보상, 시설관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김지윤 주임: 급여, 세금 업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강민 사원: 복리후생 제도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김채연 사원: 채용, 급여 그리고 복리후생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Q. 3층에 올라갈 때면 정말 밝은 분위기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사총무팀 최고의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인가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비결은요?

홍홍기 차장: 아무래도 막내? 김채연 사원이 발랄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각각의 독특한 개성이 발휘되어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강형욱 과장: 새로운 분들이 입사하면서 분위기 밝아진 것 같습니다. 각자 맡은 업무를 책임감 있게 하다 보면 즐겁게 일하게 됩니다.
김지윤 주임: 무조건 김채연 사원이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비결은 아무래도 저희 팀장님이 저희를 으쌰으쌰 할 수 있게 리드해 주십니다.
최강민 사원: 일을 하다 보면 늦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이 많지 않을 때는 “팀장님께서 오늘 바쁜 거 있어요? 없으면 빨리 집에 가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곤 합니다. 덕분에 개인 여가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김채연 사원: 팀장님이신 홍홍기 차장님께서 저희들의 강점만을 보시려고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Q. 즐겁게 일하더라도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도 힘든 순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요?

홍홍기 차장: 아무래도 업무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는 당연히 따라오기에, 업무 스트레스는 회사에서만!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고 퇴근 이후에는 회사 업무에 대해 가능한 고민하지 않으려고 부단하게 노력합니다.
강형욱 과장: 운동을 하거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김지윤 주임: 회사에서는 일단 일을 하고 집에 가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생산적인? 활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최강민 사원: 스트레스 받을 때, 운동으로 주로 푸는 것 같아요.
김채연 사원: 제 성격에 직설적인 부분이 있는데 2~3일에 한 번씩 선배님들에게 고민을 풀어놓곤 해요. 스트레스가 있을 때마다 “주임님!”, “선배님!” 이렇게 부르면서 고민을 말하고 나면 스트레스 쌓일 시간이 없어요!!

Q. 일을 하시면서 뿌듯하거나 아쉬웠던 점 등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홍홍기 차장: 우리 팀이 만들고 관리하는 제도와 활동에 의해 회사 구성원들이 더 즐겁고 편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될 때입니다.
강형욱 과장: 현재 사옥인 MTV로 이전을 완료했을 때입니다. 사옥 이전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힘들 때가 많았는데, 직원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김지윤 주임: 새로 뭔가를 시작하고 그 일이 자리를 잡을 때 뿌듯한 것 같아요. 오카페를 처음 오픈했을 때 커피 머신 설치부터 해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지금은 회사의 자랑거리가 된 것 같아 정말 뿌듯해요. 아쉬운 점은 근무복을 주문 제작하는 과정에서 너무 얇은 소재를 선택했던 점이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최강민 사원: 일을 하다 보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해결할 때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아쉬운 점이라 하면 무언가를 요청하는 일이 정말 많은데 제 뜻과 달리 일에 진척이 없을 때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김채연 사원: 공채 10기분들과 오리엔테이션을 가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현재 회사에서 공채 10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라는 생각에 뿌듯하고, 모두의 얼굴과 이름을 외우고 있다는 점이 뿌듯합니다! 아쉬운 점은 그때그때 스트레스를 풀어서 아직까지 크게 없습니다.

Q. 인사총무팀에서도 21년도에 새로이 입사하신 분이 3분이 계신데요. 근무하시면서 본인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홍홍기 차장: 본의 아니게 아침형 인간이 되었습니다. ㅠㅠ
강형욱 과장: 첫 직장이어서 제 사회생활의 시작이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삶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윤 주임: 바쁘게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최강민 사원: 새로운 일을 하고 일뿐만 아니라 업무 외적의 관계 등으로도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김채연 사원: 음.. 제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근무기간 6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성격이 너무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 대학시절에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런 눈초리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들 너무 좋게 봐주시고 분위기 메이커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Q. 최근 회사가 점점 커져가면서 신규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새로이 입사하신 분들 혹은 입사하실 분들께 오알켐에서 이런 것들은 꼭 자랑하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홍홍기 차장: 다양하고 유용한 복리후생도 있지만, 가장 크게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오알켐은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강형욱 과장: 거래처분들이 방문했을 때 가장 부러워하는 것 같은 사내 카페입니다.
김지윤 주임: 복리후생에서만큼은 회사에서 정말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식비 같은 경우도 큰 제한이 없고 오카페, 51펍 등 다 자랑하고 싶어요!
최강민 사원: 대리운전이요! 회식 후에 부담이 덜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리스타 경력이 10년 넘으신 매니저님이 오카페를 운영해 주셔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김채연 사원: 신입사원의 경우에 24시간 내내 돈을 쓸 일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기숙사, 조,중,석식 제공 등 덕분에 한 푼도 안 쓰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동창들과 모여서 각자의 회사를 자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회사 복지는 아무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O! Interview

공채 10기 신입사원

(오알켐 윤지수 기자, 김정현 기자)

" Z세대 막내 99즈 "

우리 오알켐의 Z세대 중 막내 99즈! PKG선행개발팀 김은아 사원, 개발1팀 정상윤 사원,
분석팀 최다정 사원, 품질팀 김새얀 사원을 함께 만나볼까요?


PKG선행개발팀 김은아 사원


개발1팀 정상윤 사원


분석팀 최다정 사원


품질팀 김새얀 사원

01

Q. 공채10기로 입사 후, 인턴 기간동안의 가장 기억에 남는 즐거웠던 일, 아쉬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김은아 사원: 동기들과 대부도로 중간교육 갔을 때가 가장 즐거웠고, 전체 회식을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정상윤 사원: 중간교육 때,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동기들과 편하게 얘기하고 놀면서 진짜 잘 놀았던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실수할 때, 선배님들과 동기들이 많이 도와줬지만 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실수만 한다는 생각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최다정 사원: 즐거웠던 기억은 처음 봤던 사람들과 친해질 기회가 있었던 OJT 기간과 중간교육입니다. 중간교육 때 회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친목 도모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딱히 생각나는 것이 없네요.
김새얀 사원: 즐거웠던 일은 중간교육으로, 자유롭고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놀면서 동기애가 더 깊어졌습니다!
아쉬운 점은 인턴 기간 초반에 코로나에 걸려 1주일 동안 격리하면서 OJT 기간에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접하지 못하여 아쉬웠습니다.

02

Q. 첫 출근했을 때와 지금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혹은 입사하기전에 내가 생각한 회사생활과 다른 점이 있다면?

김은아 사원: 가장 달라진 점은 옷차림이 아닐까요?! 저는 PKG 선행개발팀으로서 약품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어 회사 근무복을 입고 일을 하기 때문에 출근할 때도 입고 출근합니다.
정상윤 사원: 입사를 하고 첫 출근 때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을 했는데요. 내가 앞으로 다녀야 할 회사라는 생각에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정말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호기심보다는 예전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출근하는 것 같아요.
최다정 사원 : 첫 회사 입사라서 나름 출근룩에 대한 환상(?) 이 있었는데 막상 출근할 때, 근무복만큼 오알켐답고 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벌써 조금 옷이 지저분해진 것 같지만 열심히 한 증거 같아서 뿌듯합니다!
김새얀 사원 : 입사하기 전, 회사 생활이란 딱딱하고 무거운 분위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동호회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제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03

Q. 이번에 공채 10기 여러분들이 20명이 넘는 인원으로 뉴페이스가 정말 많이보이는데요. 회사생활 하면서 동기가 많다는 점은 언제나 즐거운 것 같아요! 동기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은아 사원: 입사 3개월 동안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함께 으샤 으샤 하면서 잘 지내자! 모두 파이팅!
정상윤 사원: 일을 하면서 잘 이해해 주고 격려해 줘서 고맙습니다. 아직은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적응하는 익숙해지는 단계이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업무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다정 사원: 모두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질문 많아도 대답 잘해주시고 장난도 받아주시고 정말 감사드려요. 3개월 동안 좋은 분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기수 들어올 때까지는 막내니까 이뻐해주세요. ㅎㅎ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김새얀 사원: 회사에 적응하는데 동기들이 가장 의지가 많이 되었고 모두 다 편하게 대해줘서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10기 모두 힘내서 일하고 퇴근 후 회식도 종종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싶습니다! ^—^

04

Q. 마지막으로 오알켐에서 기대되는 자신의 모습은 어떨 것 같나요?

김은아 사원: 첫 직장, 첫 사회생활이라 아직은 오알켐에서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미래의 제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정상윤 사원: 아직은 오알켐이라는 회사에서 완벽하게 적응했다고 말하기가 어렵지만, 저는 앞으로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더 나아가 PCB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최다정 사원: 분석팀으로서 분석실의 모든 기기의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약품 합성과 개발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일적으로 말고 사적으로 만나도 기댈 수 있고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김새얀 사원: 회사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주어진 일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 앞날을 기대하며 회사생활을 하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여수

공채 6기 여행기

찰칵

동기사랑! 나라사랑! 2019년 초, 오알켐에 입사하여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던 공채 6기들. 맛있는 음식과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한 전라도 순천과 여수로 다녀온 첫 동기여행의 순간들을 담아봤습니다.


여수레일바이크


오동도


여수해상케이블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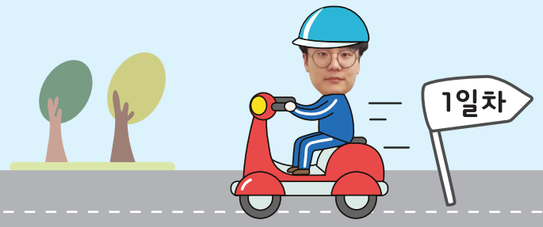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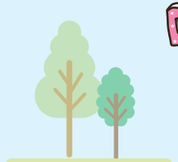

게장정식


아트뮤지엄














여행을 떠나요~♥



순천드라마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순천바다


남도밥상

travel


회사 집결



여행 소감

[마케팅팀 김대균]
이번 여행을 통해서 동기들과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이었고, 다른 분들도 좋은 분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총무팀 김지윤]
여행으로 3년간 함께 지내온 동기들과 각별해질 수 있는 참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사내 여러 그룹이 이러한 여행 지원을 통해 추억을 쌓을 기회를 얻고 이런 뜻깊은 소통활동이 오알켐에 오래 이어졌으면 합니다.

[개발팀 구자원]
이번 여행은 단순히 즐기고 오는 것이 아닌 소통의 장으로, 서로 소통할 여유가 없는 일상이 여유가 있는 여행이 되어 다시 나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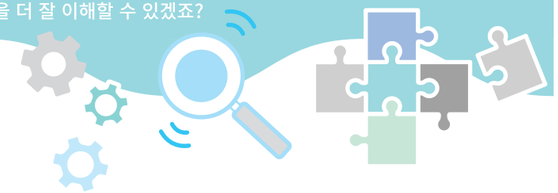
[기술팀 이남훈]
이번 공채 6기 동기들과의 여행은 정말 다시없을 기억들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동기뿐 아니라 다른 선, 후배들의 뜻깊은 자리가 더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KG 선행개발팀 채강호]
든든한 동기들과 유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오알켐에서 또 하나의 행복했던 기억을 쌓을 수 있었던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분석팀 김기훈]
이번 여행이 더욱 가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여행, 여가와는 먼 개념인 회사의 일원으로서 다녀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기들의 본연의 모습들을 마주할 수 있는 값진 기회였고, 일과 여가라는 개념의 경계가 조금은 옅어지게 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팀별 강점이 되는 부분을 알아보자!

회사라는 조직 안에는 여러 팀이 존재하고, 그 팀을 여러 사람들이 모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팀을 구성하는 개인의 강점을 조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정리한 오알켐의 팀별 대표 강점을 알아봅시다. 우리 팀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팀은 어떠한지를 알면 팀과 팀원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공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나 상황에 자신을 이입함으로써 그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음.
스스로를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함.
대개 행동을 취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기분과 관점을 따져 봄.
입 밖으로 표현되지 않은 질문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정리

복잡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이를 보완해 주는 유연성도 가지고 있음.
생산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모든 구성요소와 자원을 최적으로 조직하는 방안에 대해 궁리하는 것을 좋아함.
주체적으로 고민하면서 모든 요소가 가장 잘 들어맞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을 즐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직관적으로 감지함.

화합

합의점을 모색함. 침착하고 안정적임.
갈등을 피하고 합의를 도출하며 사람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함.
갈등 상황에서도 공통점을 찾는 능력이 뛰어남.

최상화

개인이나 단체의 탁월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들의 강점에 초점을 맞춤.
우수한 수준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추구.
개인과 그룹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방법으로 강점에 집중함.
잘하는 일에 집중하고 약점은 관리함.

책임

자신이 하겠다고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강한 책임감을 느낌.
정직성과 충실함 같은 가치관을 매우 중요시하고 따름. 믿을 수 있으며 약속을 끝까지 지킴.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법이 없으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함.

복구

문제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남.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해결안을 찾아내는 데 뛰어남.
문제가 있는 상황에 용기와 창의력을 불어넣음.
다른 사람들은 감지하기 힘든 문제를 재빨리 찾아냄.

분석

이유와 원인을 조사함. 냉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음.
질문을 하거나 숫자를 사용하여 사실에 접근하는 것을 좋아함.
어떤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인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팀별 강점 1위 (평균)

재무회계팀	인사총무팀	전산정보팀	전략기획팀
화합	공감	책임	최상화
영업관리팀	마케팅팀	영업팀	구매자재팀
공감	복구	책임	책임
PKG TFT	연구관리팀	기술팀	개발팀
화합	책임	화합	분석
분석팀	생산부	환경안전팀	품질팀
공감	정리	최상화	책임

(책임 5개 공감 3개 화합 3개 최상화 2개 복구 1개 정리 1개 분석 1개)

슬기로운 직장생활

직장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직장인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본 고민일 텐데요. 직장이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는 곳입니다.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위해, 함께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만든 오알켐 구성원들 간의 공통의 약속 중 직원의 약속에 대해 살펴볼까요?

1. 실수를 빨리 인정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실수를 하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어떤 점에서 실수가 생겼는지 원인을 파악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통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실수입니다.

2. 정보를 활발히 공유한다.

'Silo 현상'을 아시나요? 사일로 현상이란 조직의 부서들이 다른 부서와의 정보 공유 및 소통을 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보를 활발히 공유한다는 것은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이겠죠? 소통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는 물론 서로 연결된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3. 대안 없이 비판하지 않는다.

비판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올바른 비판은 문제점을 파악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대안 없는 비판은 그저 비난에 불과합니다. 대화를 통해 아이디어를 찾거나 경험을 토대로 한 대안을 가진 비판은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4. 일의 기한과 목적을 중시한다.

목적이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목표, 방향,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업무일지라도 일의 목적 "WHY"에 대한 이해는 일의 명확함과 속도를 얻어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일의 기한을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오알켐 행동약속 10계명의 첫 번째가 '업무의 기본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이죠. 시간 약속인 기한을 중시합시다.

O's Road Photogenic

문을 열면 다른 세상이 펼쳐진 판타지 영화처럼, 오알켐에도 문을 열면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 있죠.
꽃과 풀내음이 가득한 오즈로드에 다녀온 오알켐人을 만나볼까요?



사보 1주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으로 채워주세요
- 박정수 -

오케스트라의 1주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글 기대하겠습니다 :)
- 이효정 -

사보 1주년 축하드립니다.
10주년까지 Go Go!
- 구매자재팀 김흥덕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앞으로 더 행복한
회사가 되길 기원합니다.
- 기술팀 이진규 -



사보가 소통의 장으로
발전하기 바랍니다 - 이웅범 -

사보 돌잔치 축하합니다.
- 구매자재 공진호 -

사보 1주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부탁드립니다
- 김주연 -

대박 나세요!
박재인

사보 매번 챙겨보고 있는데
벌써 1주년이라니!!!
너무 축하드리고 좋은소식 많이 들려주세요!
- 유영호 -

오케스트라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알차고 즐거운 사보가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
- 이정민 -

사보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번 사보나올때 마다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보를 볼수있도록
부탁드리고 응원합니다!
- 변병진 -

ORCHEM
Global No.1
첫 돌 축하합니다
- 김 서미 -

사보 “ORChestra” 1주년 맞이 설문조사

오알켐 사보 “ORChestra”가 2021년 7월 1일 창간하여 어느덧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더 알차고 유익한 사보를 위해 오알켐 임직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사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알켐人은 사보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1. 우리 사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1위] 41.7% 만족
   [2위] 25.0% 매우 만족

2. 사보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위] 70.8%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2위] 45.8% 조직문화 내재화

3. 사보가 직장생활에 어떤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중선택)
   [1위] 66.7% 동료나 다른 부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2위] 45.8% 회사 흐름 파악에 도움이 된다

4. 사보를 어느정도 읽으십니까?
   [1위] 45.8% 관심 있는 내용만 읽는다
   [2위] 29.2%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읽는다

5. 사보의 콘텐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위] 41.7% 읽을거리가 풍부하고 유익하다
   [2위] 29.2% 유익한 내용이지만 다양하지 않다
   [2위] 29.2% 내용은 다양하나 별 도움이 안된다

6. 사보 콘텐츠 중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다중선택)
   [1위] 62.5% 회사소식 (오알켐, 관계사, 해외법인)
   [2위] 45.8% 인터뷰 (임원, 팀, 개인 등)
   [3위] 37.5% 산업/기술동향

7. 사보 속 해외법인, 관계사의 내용 및 분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위] 87.5% 적당하다

8. 사보를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중선택)
   [1위] 62.5%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2위] 37.5% 사보 내용을 풍성하게 해야 한다
   [3위] 20.8% 이벤트를 자주 해야 한다

9. 사보 발행 형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위] 54.2% 현재의 웹진 사보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2위] 33.3% 인쇄사보도 하고 웹진 사보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10. 사보 발행 주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위] 70.8% 기존 주기인 분기별로 발간되는 것이 적당하다
   [2위] 16.7% 매달 발간되었으면 한다
   [3위] 12.5% 6개월에 한번씩 발간되었으면 한다

애플의 카본사이드(Carbon-cide*) 현황

*Cide : 그리스어로 살인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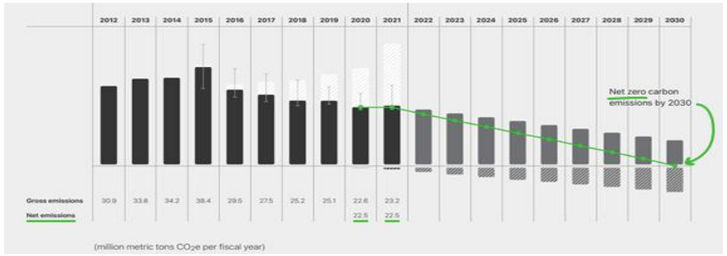
(오알켐 마케팅팀 김성우 사원)

"매년 탄소 배출량을 100만톤씩 줄이겠습니다"

2021년 4월 21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애플의 CEO 팀 쿡은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제조업의 2019년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2만 308톤으로 그다음을 잇는 전기가스업(11만 1686톤)보다 월등히 높다. 이처럼 전 산업군에서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제조업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 친환경을 선도하는 글로벌 제조업체인 애플은 어떤 방법으로 친환경에 접근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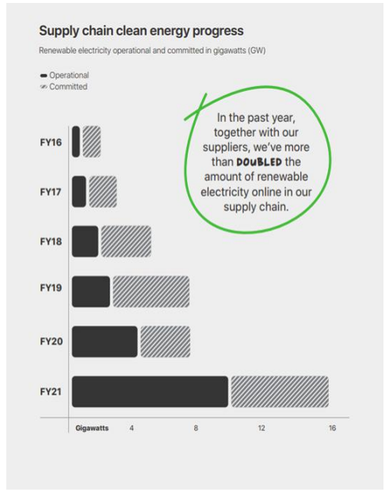
애플은 47억 달러 규모의 *그린본드 투자를 진행했다. 이 투자 규모는 민간 분야에서 사상 최대 규모이며, 이 투자로 새로운 저탄소 제조 및 재활용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애플은 저 탄소 배출 관련 기술 50건의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그린본드(Green Bond)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산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채권) 애플의 친환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제거하는 특허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에 총 1.4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2022년, ELYSIS의 제련 공정 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알루미늄을 구매할 예정이다. 기존의 알루미늄 제련 과정은 자연에서 존재하는 산화알루미늄(Al2O3)에 강한 전류를 사용하여 산소를 제거한다. 그 후 탄소 물질을 사용하여 재련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CO2)가 생성된다. 이에 반해 무탄소 알루미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며, 산소를 배출한다. ELYSIS의 무탄소 알루미늄은 실험실 외부에서 산업 수준으로 제조되는 최초의 알루미늄이다. 애플은 이 소재를 제품에 적용하여탄소 사용량을 제로화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애플은 2018년 4월 재활용을 위한 아이폰 분해 로봇인 데이지를 공개했는데, 시간당 140대 아이폰을 분해하던 전작 리암의 후속 모델로 9종에 달하는 크기가 다른 아이폰을 시간당 200대가 넘게 분해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기존에 분해할 수 없었던 일부 희토류를 포함한 금속들을 분해할 수 있는 Taz라는 장비가 도입되었으며, 이 기기들의 도움으로 희토류 원소 45%, 주석 30%, 코발트 13% 및 금을 재활용하여 전기 소모량,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금속 제련을 최소화하여 탄소 중립 정책에 다가섰다.



[그림1] 애플의 탄소 절감 현황 (출처:애플)

애플의 공급처의 전기 사용은 탄소 배출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탄소 중립화는 글로벌 이슈이기에, 화석 연료를 통한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절할 예정이다. 2021년까지 애플의 공급처는 총 10.3GW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했으며, 총 1,390만의 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었다. 이 수치는 2020년 대비 62% 증가한 수치이다. 이처럼 애플의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매우 급진적이며, 탄소 중립을 발표한 2030년까지 애플 공급망의 탄소 배출량을 0이 되도록 전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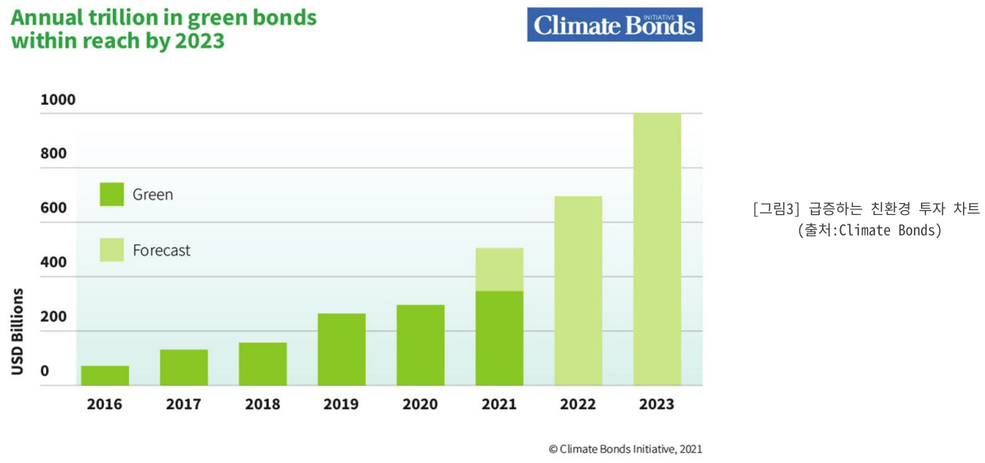


[그림2] 애플 공급사의 재활용 에너지사용 현황 (출처:애플)

삼성전자, SK 등의 국내 대형 OEM 업체 역시 친환경으로 전환 중이다. 삼성전자는 해양 폐기물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재생 플라스틱으로 갤럭시 S22 시리즈에 적용하였으며, 가전제품의 생산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게다가 공정 중 발생하는 침전물을 재활용하여 폐기물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반도체에서는 '카본 트러스트(Carbon Trust)'로부터 탄소 저감 인증을 받는 등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K에서도 2025년까지 친환경 사업 분야에 14조, 현재 투자 금액인 1조 2천억 원의 10배 수준까지 키운다는 구상이다. SK Hynix에선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인 eSSD (Enterprise SSD)를 도입하여 HDD 대비 60% 적은 전력을 사용하여 전력 소모량을 감소시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기대한다.

선도 기업들의 친환경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20% 이상을 제조업에 의존하며, 수출에 90%를 의존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요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제적으로 그린 에너지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 약 5천억 달러의 친환경 투자가 있었으며, 4천억 달러였던 2020년 대비 20% 증가했다. 이러한 기조가 이어져 2025년에는 1조 달러의 친환경 투자를 예상한다.



[그림3] 급증하는 친환경 투자 차트 (출처:Climate Bonds)

친환경은 기본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지만, 하나의 큰 마케팅 요소이기도 하다. 애플을 포함한 글로벌 OEM의 친환경 기조는 친환경 원료의 수요로 이어질 것이며 OEM 승인이 절대적인 High-end 시장에선 친환경 기술의 제품이 더 선호될 것임이 자명하다. 이에 오알켐 역시 여러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환경 오염 물질 사용 최소화, 폐액 재활용 등의 활동같이 폐액을 감소시키는 방법 및 제품의 농도를 높여 폐수 처리되는 양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급증하는 친환경 수요에 발을 맞춰야 할 것이다.

O! Language

오알켐에는 해외 지사로 중국법인과 베트남법인이 있습니다. 해외법인과 이야기를
해야 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단은 전화와 이메일이죠. 기본적인 전화와 이메일 표현을 함께 알아볼까요?

E-mail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很高兴能与您共事。
(Hěn gāoxìng néng yǔ nín gòngshì)
(헌 까오싱 넝 유 닌 꽁시)
Rất vui được cùng làm việc ạ.
(쟏 부이 돋 꽁 람 비엑 아)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드립니다.
刚才您询问的事情，我向您说明一下
(Gāngcái nín xúnwèn de shìqíng, wǒ xiàng nín shuōmíng yīxià)
(깡차이 닌 시웬 더 쉬칭, 워 샹 닌 슈어밍 이시야)
Chúng tôi sẽ trả lời câu hỏi của bạn.
(총 또이 세 쨔 로이 꿔우 호이 꿔아 반)

요청하신 자료 보내드립니다.
已将你要求的资料发出。
(Yǐ jiāng nǐ yāoqiú de zīliào fāchū.)
(이 지앙 니 야오치우 더 쯔랴오 퐈추)
Tôi xin gửi dữ kiện chúng tôi mà ạnh/chị đã yêu cầu.
(또이 씬 그이 쥬 끼엔 쭝또이 마 안/찌 다 이우꺼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详情内容如下。
(Xiángqíng nèiróng rúxià.)
(쌍칭 네이롱 루시아)
Nội dung chi tiết là như sau.
(노이 죵 치 띠엣 라 뉴 싸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我等您的回复。
(Wǒ děng nín de huífù)
(워 덩 닌 더 훼이푸)
Tôi sẽ chờ đợi hồi âm của bạn.
(또이 세 쵸 또이 호이 엄 꿔아 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如有任何疑问，请随时与我联系。
(Rú yǒu rènhé yíwèn, qǐng suíshí yǔ wǒ liánxì.)
(류 려우 렌허 이웬, 칭 쓰웨이싀 류 워 롄시)
Nếu bạn có câu hỏi nào, xin hãy liên lạc với chúng tôi bất cứ khi nào.
(네오 반 꼬 꿔아 호이 나오, 씬 헤이 리엔 락 보이 총 또이 박 쿠 히 나오)



(*베트남어는 남성의 경우 anh, 여성의 경우 chi를 사용)

전 화

안녕하세요, 여기는 오알켐입니다.
你好，这里是ORCHEM公司。
(Nǐ hǎo, zhèlǐ shì ORCHEM gōngsī)
(니하오, 쩌리 쉬 오알켐 꽁씨)
Alô, công ty ORCHEM a xin nghe.
(알로, 꽁띠 오알켐 씬 녜)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请问您是哪位?
(Qǐngwèn nín shì nǎ wèi)
(칭원, 닌 쉬 나 웨이)
Xin lỗi, anh/chị là ai?
(씬 로이, 아잉/찌 라 아이?)

어느 분을 찾으십니까?
您找谁?
(Nín zhǎo shéi?)
(닌 자오쉐이?)
Anh/Chị tìm ai ạ?
(아잉 띰 아이 아?)



어느 부서로 연결해드릴까요?
帮您把电话转到哪个部门?
(Bāng nín bǎ diànhuà zhuǎn dào nǎge bùmén?)
(빵 닌 빠 띠엔화 쭨 따오 나거 뿌멘)
Anh/Chị muốn liên hệ đến đâu?
(아잉/찌 무온 리엔 헤 덴 더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请稍等一下。
(Qǐng shāo děng yīxià)
(칭 샤오 덩 이샤)
Anh/Chị vui lòng đợi một chút.
(아잉/찌 부이 롱 더이 몯 쫏)

전화 돌려드리겠습니다.
我帮您把电话转过去。
(wǒ bāng nín bǎ diànhuà zhuǎn guòqù.)
(워 빵 닌 빠 띠엔화 쭨 꾸어취)
Tôi sẽ chuyển máy ngay ạ
(또이 세 취엔 마이 응아잉 아)



수면의 중요성

하루 수면시간의 평균값을 1로 볼 때
6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면? (단위: 배)

스트레스 지수는
1.4~1.8배

우울감은
1.2~1.7배

성인 적정 수면시간 7~8시간

1 집중력, 기억력 향상
잠이 부족하면 학습장애와 일의 능률이 저하됩니다.

2 비만 및 당뇨 예방
잠이 부족하면 탄수화물을 체내 저장하고 대사가 느려져 비만이 되기 쉽고 당뇨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3 안전 사고 예방
잠이 부족하면 낮에 졸리기 쉽고, 실수나 넘어지는 등 안전하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건강엔 잠이 보약인 6가지 이유

4 행복감 증가
잠이 부족하면 감정변화가 심하고, 예민하거나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5 고혈압 심장 질환예방
잠이 부족하면 고혈압 부정맥 및 심장 질환의 위험이 높습니다.

6 면역력 강화
잠이 부족하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의 생산과 활동을저하시켜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참 쉬운 에너지절약 습관

매년 8월22일은 에너지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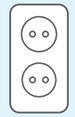
에너지의 중요성과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바로 나와 지구 모두를 위해 그린액션 캠페인을 실행 합시다!



에어컨 온도 26도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기



에어컨 필터 주기적 청소
에어컨 필터 2주에 한 번 청소하기



전기 사용 후 플러그 뽑기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충전 완료 후 플러그 뽑기
휴대폰 충전완료시 플러그 뽑기

우리나라 지역축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열리지 않거나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던 지역 축제들이 하나둘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은 4곳의 지역 축제를 소개합니다.

제20회 부여서동 연꽃축제



lotusfestival.kr/
기간 :
07.14(목)~07.17(일)
장소 :
부여서동공원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81)

'스무살 연꽃 화원의 초대, 빛나는 이야기를 담다'라는 주제로 궁남지에서 진행되는 축제로, 궁남지는 "백제 무왕 당시 궁 남쪽에 연못을 팠다"라는 삼국사기 기록을 통해 백제의 별궁 연못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연못입니다. 이곳에서 천만 송이의 연꽃의 향연을 즐겨보세요.

동강국제사진제



dgphotofestival.com/
기간 :
07.22(금)~10.09(일)
장소 :
동강사진박물관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909-10)

올해로 20회는 맞이한 동강국제사진제는 강원도 영월군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대표 사진 축제로, 국내 유일의 사진 전문 공립 박물관인 동강사진박물관과 영월군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국제 주제전, 국제 공모전, 동강사진상 수상자전, 강원도 사진가전 등 다채로운 전시들을 통해 사진에 담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17회 시흥갯골축제



sgfestival.com/
기간 :
09.23(금)~09.25(일)
장소 :
시흥갯골생태공원
(경기 시흥시 동서로 287)

갯골이란 갯고랑의 줄임말로, 갯벌의 수로를 말합니다. 축제가 열리는 시흥갯골생태공원은 갯골을 중심으로 45만 평이 넓게 펼쳐져 있으며, 옛 염전 터와 습지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및 사진전 등을 즐겨보세요.

2022 광주국화전시회



gwangjugukhwa.com/
기간 :
10.07(금)~10.23(일)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국화전시회는 도심 속에서 느끼는 국화의 정취와 함께 공연, 행사, 화훼 직거래 장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을 향기가 묻어나는 국화와 함께 가을을 맞이해보세요.

사내기자단 1기 활동소감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되어 1년간의 사내기자단 1기의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 1호부터 지금의 5호까지 다양한 취재를 담아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입사와 거의 동시에 사보 기자단 활동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네요. 뒤돌아보면 사보기자단 활동을 하며, 평소에 접점이 없었던 타 부서 임직원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친해질 수 있는 간이어서 더욱 소중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사보기자단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 오알켐 김정현 사원 -

입사 후 타 팀 임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싶어 사보기자로 지원한 뒤 벌써 1년이 지났네요. 4호 발행까지 매번 어느 분을 취재하여 어느 흥미로운 기사를 실을지 고민하며 설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정현 동기와 함께 생산동, 사무동, 오카페, 경비실, 구내식당, 휴게실과 청소실을 누비며 회사 구석구석을 여러분께 공유드렸는데요, 2기 기자단이 더욱 신나고 유익한 취재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사보팀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

- 오알켐 윤지수 주임 -

2021년 6월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사내 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되어 긴장되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1년이 흘러 동료분들의 도움으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왼고 작성, 조직화, 조직 능력 등에 대한 이해와 향상을 이뤘습니다. 앞으로도 진지하게, 그리고 긍정적이라는 이념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중국법인 Mo qiu yu 사원 –

저는 사보를 처음 하게 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직원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사보를 작성을 하게 되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보 하면서 벌써 사보 5호를 하게 될 줄은 몰랐고,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오알시솔루션 박승영 사원 -

기자단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는 천천히 가는 느낌인데, 일 년이 지난 걸 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사내 기자단이 되어 회사 내 소식과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전달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보 발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소식만 가득 게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ALS 장민현 대리 –

22년 2월부터 사내기자를 시작을 하게 되어 사보 4호부터 활동하였고, 그때 회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곰곰히 생각하여 회사 한바퀴를 둘러보게 되었고, 2022년 목표에 대해 다른 직원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오알시솔루션 김준용 –

지난 1년 동안 사보를 통하여 본사와 해외법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내 기자단 활동이 연결고리를 형성하여 직원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고, 각 직원들의 열정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보와 기자단 활동이 모든 회사 직원들에게 의미 있는 코너가 되고, 회사의 성장에 작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해 주시는 기자단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 베트남 법인 jang 사원 –

동물로 알아보는 스트레스 원인!

당신은 자신이 지금 묶여 있는 동물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다음 보기 중에서 어떤 동물이 자신의 이미지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 우리에 갇혀 있는 호랑이 | 2. 새장에 갇혀 있는 새 | 3. 쇠사슬에 묶여 있는 강아지 | 4. 철장에 갇혀 있는 햄스터 | 5. 수조에 갇혀 있는 거북이

1. 우리에 갇혀 있는 호랑이
지루한 일상 자체가 스트레스인 당신.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에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시지 않나요?
할 수 있는 일들과 활기차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보는 것도 당신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좋은 대안 중 하나입니다.

2. 새장에 갇혀 있는 새
당신은 자신의 격한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새를 선택한 사람은 스스로 느끼는 감정을 억누르면서 언젠간 터질 것만 같아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던 적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연극이나 창작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당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3. 쇠사슬에 묶여 있는 강아지
당신은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스스로의 욕구를 억누르고 있으며 하고 싶은 일을 참은 적이 많아 보입니다.
가끔은 족쇄를 벗어버리고 인생을 즐기는 여유를 가지시는 게 어떨까요?

4. 철장에 갇혀 있는 햄스터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언제나 불안감을 느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쳇바퀴를 굴리고 있는 햄스터는 마음속에 무엇인지 모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심리상태를 표현해요.
당신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는 게 당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5. 수조에 갇혀 잇는 거북이
게으른 자신에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당신은 무엇을 해도 귀찮아하고 중요한 일도 뒤로 미루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에게 스스로가 화난 상태예요.
우선 자신이 해야 할 일들과,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을 조금씩 들여보세요.

퀴즈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응모방법 : 전영례 사원 메일(jyrea@orchem.com)로
문항별 정답 발송 (랜덤 추첨)

Quiz

1년간의 사보 모두들 잘 읽고 계신가요? 이번 5호의 퀴즈는 사보 “ORChestra” 퀴즈!
오케스트라의 독자라면 모두 맞출 수 있겠죠? Start~!

1. 사보 ORChestra의 창간일은?
①2021년 7월 1일
②2021년 7월 2일
③2021년 7월 3일
④2021년 7월 4일

2. 사보 1호의 메인 컬러는?
①회색(Gray)
②민트색(Mint)
③노란색(Yellow)
④초록색(Green)

3. 사보 2호의 베트남법인 소식에서 소개된 Hero 5명 중 Manh 팀장의 부서는 어디일까요?
①관리팀
②회계팀
③개발팀
④QC팀

4. 사보 4호의 ORC솔루션 소식에서 소개된 “회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①건물 옥상
②사내 공원
③회사 마당
④사무실

5. 사보 3호의 중국법인 소식에서 영업관리팀 Mo Qiuyu 사원이 입사한 월은 언제일까요?
①10월
②12월
③2월
④4월

6. 사보 2호의 ALS 소식에서 소개된 새단장한 식당이 위치한 곳은 어디일까요?
①1층
②2층
③3층
④4층

7. 사보 4호 산업기술동향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①블록체인기술
②메타버스
③4차 산업혁명
④AI

OsRChestra
2022 | Vol.5
www.orchem.com



51th
2022.07.01

ORCHEM